

메시지 4
몸의 공급과
몸의 지체들과 몸의 제한

성경: 빌 1:19, 고전 12:15, 21, 27, 롬 12:5, 엡 4:7, 고후 10:13

I. 몸의 공급은 복합된 관유, 곧 바르는 거룩한 기름으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다 — 빌 1:19-21상, 출 30:23-25.

- A. 복합되신 영은 몸 안에 그리고 몸을 위해 계시며, 몸을 건축하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해 계신다 — 출 30:26-31, 롬 15:16, 뱀전 2:5, 9.
- B. 시편 133편에 따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한없이 즐거운 일인 형제들이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보배로운 복합된 관유에 비유된다 — 엡 4:3.
- C. 우리는 지체들의 중보 기도와 교통에 의해 그 영의 공급을 받는다.
 - 1. 우리가 메마르고 전진할 길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하려면 먼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필요하다 — 빌 1:19, 살전 5:25, 욥 42:8-10.
 - 2.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공급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먹일 뿐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먹여야 한다 — 눅 11:1-13.
 - 3. 우리는 몸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교통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 살전 3:8, 고전 10:16하, 요일 1:3.
 - 4. 우리가 몸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몸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 5. 빛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소 곧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시 73:16-17, 마 5:14, 계 1:20.
 - 6. 온몸은 지체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건축된다 — 고전 16:18, 엡 4:16.

II.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 고전 12:27, 롬 12:5, 엡 5:30.

- A. 모든 믿는 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된다 — 고전 12:15, 21, 롬 12:3.
- B. “우리가 참으로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본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44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98쪽) — 요 1:50-51, 딤후전 3:15.
- C. 자신이 몸의 지체인 것을 본 이들은 분명히 몸을 귀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이다 — 고전 12:23-24, 빌 2:29, 고전 16:18, 사 9:9.
- D. 어디든지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에는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고, 어디든지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 1. 우리가 몸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도 구출되어야 한다.
 - 2. 아버지께서 세상과 대립되시고, 그 영께서 육체와 대립되시며, 주님께서 마귀와 대립되시듯이 몸 또한 개인과 대립된다.

3. 우리는 머리에게서 독립할 수 없듯이 몸에게서도 독립할 수 없다.
4.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 a. 몸의 원수는 자아, 곧 독립적인 '나'이다 — 마 16:21-26.
 - b. 우리가 몸 안에서 건축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아를 유죄 판결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며 버려야 한다.
 - c.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몸, 곧 형제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 — 출 17:11-13, 행 9:25, 고후 11:33.
5.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몸의 다른 지체는 알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몸의 다른 지체는 볼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몸의 다른 지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가 우리의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 고전 12:12.
7. 개인주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말라 버릴 것이다.

III.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우리를 제한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 A. 몸이 자라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 엡 4:7, 16.
- B. 머리는 몸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지정해 주신다 — 고전 12:18.
- C.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일이나 체험이나 누림을 간증할 때, 반드시 분량 안에서 즉 어떤 제한 안에서 간증해야 한다.
- D. 우리는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한계 없이 확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고후 10:13-15.
 1.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일을 확산한다면, 항상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다 — 비교 고전 2:12-14.
 2.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확산하고자 하신다는 의식을 가질 것이다. 어떤 지점을 넘어서 일을 확산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갖지 못한다.
 3. 외적으로, 환경 안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일의 확산을 제한하실 수 있다. 환경이 우리가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비교 롬 15:24.
 4.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 고후 10:13.
 5. 교회의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만 측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치게 뻗어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롬 12:3-4, 6상.